

# 축구&

8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 송민규 전북행 '뒷이야기'

# “20억원”...집요함이 만든 빅딜

(이적료 추정)

재정 어려운 포항, 큰 금액에 흔들 유럽 진출 목표였던 송민규도 설득 소식 늦게 접한 김기동 감독 '울상'



'송스타' 송민규가 20일 전북 현대 이적을 확정했다. 전북은 송민규의 영입을 위해 포항 스틸러스에 20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리그에서 보기 드문 '메가 딜'이란 평이다. 사진출처 | 전북 현대 SNS

K리그(1부) 챔피언 전북 현대가 한국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송민규(22)를 마침내 품었다(스포츠동아 7월 16일 단독보도). 전북은 K리그 선수 추가등록(여름이적시장) 마감일인 20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송민규의 영입을 확정했다. 리그 5연패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다. 도쿄올림픽 이후 선수단에 합류해 등번호 21번을 달게 될 송민규의 계약기간은 4년 6개월, 이적료는 20억원(추정) 선이다.

전북은 올해 초부터 다용도 공격카드인 송민규의 영입을 추진했다. 2018년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19년 27경기에서 2골·3도움을 올린 뒤 지난해 27경기에서 10골·6도움으로 생애 한 번뿐인 영플레이어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좌우 측면을 모두 커버하며 공격 2선까지 책임질 수 있는 송민규에 대한 전북의 관심을 포항도 모르지 않았다. 더욱이 김기동 포항 감독이 자신의 재계약 조건으로 송민규의 잔류를 요청했을 정도로 애정이 컸다. 그 사이 전북이 포항에 제시한 이적료도 점점 올라갔다.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 원 선부터 15억 원 선까지 뛰었지만, 포항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겨울이적시장은 소득이 없었고, 포항에 남은 송민규는 올 시즌 전반기 16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며 변함 없는 실력을 뽐냈다.

전북은 집요했다. K리그 추가 선수 등록기간이 열리자마자 포항에 다시 접근했다. 급물살을 탄 시점은 6월이었다. 전북 고위층이 올림피아대팀의 가나 평가전이 열린 제주도에서 포항 고위층을 직

접 만나 '20억 원 이상'을 제안했다. 최근 K리그에서 보기 드물었던 엄청난 액수에 포항 구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포항으로선 거부하기 힘든 규모였다. 포항이 내부검토를 진행한 시점에 전북은 선수 설득에 나섰다. 유럽 진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던 송민규에게도 매력적 제안이 전달됐고, 고민 끝에 전북 유니폼을 입기로 결심했다.

포항 구단과 선수의 동의를 모두 얻자 협상은 일상천리로 진행됐고, 16일 오전 이적 합의에 이르렀다. K리그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16일 오전부터 포항 선수단 내부에서 '송민규의 전북 이적'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고 귀띔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전북의 김민재 재영입 작전 결국 무산



베이징 귀안 소속 김민재가 전북 현대를 복귀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와일드카드로 도쿄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었기에 전북의 김민재 영입 무산은 아쉽게만 하다.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피아대팀의 프랑스와 평가전 도중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김민재. 상암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 김학범 감독 요청에 OK 통큰 전북, 58억원 베팅

대표팀 합류 목적...은밀하게 진행 미래까지 바라본 역대급 베팅 불발

K리그(1부) 전북 현대의 여름이적시장은 다이내믹했다. '특급 신성' 송민규(22·포항 스틸러스)를 영입했고, 내친 김에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25·베이징 귀안)까지 품으려고 했다.

전북은 20일 "결과적으로 불발된 건이다.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로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다. 김민재 영입을 최근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북이 베이징에 전달한 조건이 높았다. 무려 500만 달러(약 58억 원)를 이적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민재를 2019년 베이징으로 이적시키며 받은 몸값 600만 달러(약 69억 원)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다.

김민재 영입은 은밀히, 또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전북이 구단 차원의 접촉을 시작한 시점이 15일이다. 이날 영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식 레터를 베이징에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베이징은 전북이 요청한 데드라인(16일) 회신을 주지 않았고, K리그 여름이적시장 마감일인 20일까지도 답이 없었다.

여기에는 올림픽대표팀 김학범 감독의 요청이 있었다.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로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김민재를 합류시키기 위해선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했고, 마지막 희망은 전북이었다. 대한축구협회(KFA) 수뇌부 일부만 공유했던, 은밀히 진행된 사안이었다.

김 감독이 베이징 구단의 '올림픽 출전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민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배경이다. 전북은 '오케이(OK)' 사인을 보냈고, 김민재 재영입에 500만 달러를 쓰기로 했다. 김민재도 감성적 전북 감독의 연락에 "복귀할 수 있다"는 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 달러는 K리그 시장에서 유례없는 액수지만, 전북은 미래까지 내다봤다. 향후 김민재를 유럽 빅리그로 진출시키면 그 이상의 비용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FC포르투(포르투갈)와 구단 차원에서 600만 유로(약 81억 원) 규모의 이적협상을 진행 중인 베이징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일만 일이었다.

남정현 기자



## 꼴찌 광주FC, 조나탄 영입 후반기 키워드는 '리스타트'

2017시즌 득점왕 출신...공격력 강화 기대 전지훈련 통해 재정비, 오늘 강원과 홈경기

K리그(1부) 광주FC가 후반기 반격에 나선다. 광주는 21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19라운드까지 광주는 최하위인 12위(승점 15)로 부진했고, 강원은 9위(승점 20)를 마크했다.

광주의 후반기 키워드는 '리스타트'다. 광주는 5일부터 10일까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실시된 전지훈련으로 팀을 재정비했다. 장점인 탄탄한 조직력을 극대화했고, 빌드업을 통한 골 결정력 향상과 수비훈련을 진행하는 등 팀을 업그레이드했다.

선수들의 부상 복귀 소식도 반갑다. 중원에서 강력한 압박과 패스 공급을 맡았던 이찬동, 부주장 여봉훈,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두현석 등 주요 멤버들이 속속 복귀해 선수기용의 폭을 넓혔다.

특히 조나탄(31·브라질)의 합류로 힘을 얻고 있다. 조나탄은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던 2017시즌 22골로 K리그1 득점왕에 올랐던 골잡이다. 이후 중국무대로 떠났다. 광주는 최근 조나탄을 청두 룽칭(중국 2부)으로부터 6개월간 임대로 영입했다. 기존 외국인 공격수 펠리페는 청두로 보냈다. 일종의 맞트레이드다. 광주는 조나탄의 합류로 득점력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는 이번 시즌 11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경기 종료 직전 이찬도의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역대 전적에서도 6승8무4패로 강원에 앞서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대한체육회, 올림픽 기간 선수단 응원 앞장

SNS서 특집 스토리형 콘텐츠 운영 참여 캠페인 '응원의 민족' 이벤트

스포츠733(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2020 도쿄올림픽 개최 기간 동안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은라인 팀코리아하우스 개관에 이어 S

NS 채널에 올림픽 특집 콘텐츠를 운영한다.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온 선수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선수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스토리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일정, 메달, 순위, 기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행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한 응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응원의

민족' 이벤트도 진행한다. 2단계 캠페인형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림픽 전 1주일간 선수단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SNS에 업로드하거나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단 경기 시청 장면을 인증하면 추천을 통해 경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기홍 회장은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연기, 무관중 경기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국민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잘 빠르게 제공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국민의 든든한 응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형호 기자 hmyang0307@donga.com

## sports2i

### 스포츠투아이드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 메이저리그 <20일>

•아메리칸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보스턴	57	38	1	시카고W	57	37	1	휴스턴	57	38
2	탬파베이	55	39	2	클리블랜드	47	44	2	오클랜드	54	42
3	토론토	48	43	3	디트로이트	44	51	3	시애틀	50	44
4	뉴욕Y	48	44	4	미네소타	40	54	4	LAA	46	47
5	볼티모어	31	62	5	캔자스시티	37	55	5	텍사스	35	59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서부지구	승	패
1	뉴욕M	49	42	1	밀워키	56	39	1	샌프란시스코	59	34
2	필라델피아	47	45	2	신시내티	48	46	2	LAD	58	37
3	애들러스	45	47	3	St.루이스	47	47	3	샌디에이고	55	41
4	워싱턴	44	49	4	시카고C	46	48	4	콜로라도	41	53
5	마이애미	40	54	5	피츠버그	36	58	5	애리조나	28	68

•타격											
타 윌			홈런			타 점			타 점		
① 브랜들리(휴스턴)	0.329	① 오타니(LAA)	34	① 케레로 주니어(토론토)	78	① 아킬라(마이애미)	68				
② 케레로 주니어(토론토)	0.328	② 케레로 주니어(토론토)	31	② 오타니(LAA)	74	② 마차도(샌디에이고)	65				
③ 보카초(보스턴)	0.316	③ 윌슨(오클랜드)	24	③ 디비스(보스턴)	73	③ 텍사스(텍사스)	64				
④ 워싱턴(LAA)	0.316	④ 갈로(텍사스)	24	④ 아브레우(시카고W)	71	④ 레이놀즈(피츠버그)	64				
⑤ 멘디스(시카고W)	0.314	⑤ 디비스(보스턴)	23	⑤ 윌스(LAA)	66						

•타점											
① 카스테야노(신시내티)	0.329	① 타이스 주니어(샌디에이고)	28	① 아킬라(마이애미)	68						
② 프레이저(피츠버그)	0.325	② 슈워츠(워싱턴)	25	② 마차도(샌디에이고)	65						
③ 터너(워싱턴)	0.319	③ 야루나(애들러스)	24	③ 예스코바(애리조나)	64						
④ 터너(LAD)	0.304	④ 예스코바(애리조나)	22	④ 타이스 주니어(샌디에이고)	64						
⑤ 레이놀즈(피츠버그)	0.302	⑤ 먼시(LAD)	22	⑤ 듀발(마이애미)	64						

#### •투수

아메리칸 리그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시메일(클리블랜드)	10	① 린(시카고W)	1.94	① 콜(뉴욕Y)	158						
② 콜(뉴욕Y)	10	② 로슨(시카고W)	2.14	② 로톤(토론토)	140						
③ 베시(오클랜드)	10	③ 콜(뉴욕Y)	2.63	③ 레이(토론토)	138						
④ 이발타(보스턴)	9	④ 김슨(텍사스)	2.86	④ 자울리토(시카고W)	133						
⑤ 류현진(토론토)	9	⑤ 레이(토론토)	2.93	⑤ 비버(클리블랜드)	130						

내셔널 리그											
다 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① 유리야스(LAD)	12	① 디그롬(뉴욕M)	1.08	① 힐러(필라델피아)	152						
② 테드렌스(시카고C)	12	② 카우스턴(샌프란시스코)	1.84	② 디그롬(뉴욕M)	146						
③ 테드렌스(시카고C)	10	③ 워드러프(밀워키)	2.04	③ 슈머저(워싱턴)	142						
④ 블러(LAD)	10	④ 번스(밀워키)	2.16	④ 번스(밀워키)	140						
⑤ 커스(LAD)	9	⑤ 로저스(마이애미)	2.31	⑤ 카우스턴(샌프란시스코)	138						

•경기결과											
오클랜드	4-1	LAA	볼티모어	6-1	탬파베이						
St.루이스	8-3	시카고C	휴스턴	4-3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3-2	시카고W (H1)	시카고W	5-3	미네소타 (H2)						
애리조나	4-2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7-2	LAD						
뉴욕M	15-11	신시내티 (연말1:10)	보스턴	13-4	토론토						
디트로이트	14-0	텍사스	워싱턴	18-1	마이애미						

#### 오늘의 토트 <21일>

•야구토트 스페셜 79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7.22(목) 08:07	토론토블루	vs	보스레드	실렌필드
2	07.22(목) 09:10	휴스앤스	vs	클리블랜드	미너트메이드파크
3	07.22(목) 11:10	LAD저스	vs	샌프라이	다저스타디움

#### 아마추어 경기결과 <20일>

- 야구** ●제 76회 전국 대학 야구 선수권대회(보은 스포츠파크) ●결승전=성원관대(우승) 16-2 통강대
- 농구** ●제 37회 MBC네 전국대학농구대회(상주실내체육관) ●남자 1부 C조=중앙대 110-68 조선대 ●남자 2부 A조=서울대 111-85 우석대 ●남자 2부 B조=초당대 94-81 조선이공대
- 2021 연맹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 김천대회(김천실내)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홍대부고 76-71 양정고, 경북고 77-74 울산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명지중 78-71 송도중, 호계중 84-71 전주남중 ●여자 중등부 8강=동주여중 86-38 부일여중, 광주수피아여중 92-66 신일여중, 청송중 88-39 연암중, 은양여중 88-43 삼천포여중

- 핸드볼**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강원도 태백) ●남자 고등부 A조=대성고 28-23 경원고, 정석항공고 28-23 조대부고 ●남자 고등부 C조=남성고 25-23 부천공고 ●남자 고등부 D조=전북제일고 29-20 삼척고 ●여자 고등부 C조=황지정상고 39-18 인천여고 ●남자 중등부 A조=선산중 35-20 조대부중, 부천남중-중평중 ●여자 중등부 A조=인화여중 29-13 용산중, 인지중-일신여중 ●여자 중등부 B조=취암여중 30-24 외정부여중 ●여자 중등부 C조=세연중 23-17 동방여중 ●여자 중등부 D조=무안북중 15-15 만성중

- 유도** ●2021 하계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강원도 양구 문화체육관) ●남자 고등부 단체전=① 보성고, ② 경남체고, ③ 삼천포중앙고, ④ 서클체고 ●여자 고등부 단체전=① 광명여고, ② 도개고, ③ 영선고, ④ 경기체고

#### 경기예고

#### 프로축구 <21일>

•하나원큐 K리그1 2021 (20라운드)		
광주	〈광주전용〉	강원
오후8시, IB스포츠		

#### 아마추어 경기예고 <21일>

- 축구** ●제 54회 대통령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경남 창원, 오후5시)
- 농구** ●제 37회 MBC네 전국대학농구대회(상주실내체육관, 오후1시)
- 테니스** ●제 57회 바볼라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
- 핸드볼** ●제 18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강원도 태백, 오전10시)
- 하키** ●2021 한국대학실업연맹 남녀하키대회(청풍국제하키경기장, 오전10시)
- 럭비** ●제 32회 대통령기 전국 중별 럭비 선수권대회(전남 강진군, 오전10시)
- 씨름** ●제 58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정읍시국민체육센터, 오전9시30분)
- 양궁** ●제 32회 한국실업양궁연맹 최장기 양궁대회(보은군 스포츠파크, 오전9시)